

송영의 <산풍>에 나타난 동양주의 담론

백승숙*

<차례>

1. 문제의 제기
2. 시골/도시의 상상적 지리
3. 동양주의의 사회주의적 전유
4. '죽음'의 미학화를 통한 일본 정신의 구현
5. 글을 마치며

<국문초록>

본고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조선의 수도 경성에서 벌어진 '제 1회 국민연극경연대회'에서 연출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당시 경성에 살고 있던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내었던 연극 <산풍>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이 어떠한 담론화 방식을 통하여 당대 민중들을 지배·재구성·억압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산풍>에는 시골/도시의 상상적 지리 의식이 극 전반에 포진해 있다. 이 극의 배경인 '산골마을'은 한적하고 인정 있고, 예의 바르며, 깨끗한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표상된다. 그 대표적 인물로 '모'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도시'는 인심이 무섭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물질주의에 빠진 곳으로 재현된다. 대표적 인물로 '해주집'과 '영자'가 있다. 이와 같은 구도는 <산풍>의 핵심에 가로놓여 있는 심상지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극의 배경이 되는 '불교' 역시 '동양의 표상'으로 사용된 것이다.

둘째, <산풍>에서는 '동양주의의 사회주의적 전유' 과정이 발견된다. <산풍>은 사회주의자 송영이 동양주의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송영은 일본=동양을 도덕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약자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서 사고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닌 사회주의적 구도에서 서양=자본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일본을 사고함으로써 보다 쉽게 일본의 편에 자신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죽음의 파토스를 통한 일본 정신의 구현'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도시'와 '문명'에 현혹되어 타락해버린 산속 사람들을 정화시킨 것은 그 무엇보다도 '모'의 죽음이었다. 송영은 '모'의 죽음을 통해 도시적 물질주의에 의해 타락하기 이전의 '순결'한 일본 '정신'을 표상해낼 수 있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전쟁으로 표상되는 태평양 전쟁에서 동양의 원천성을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희곡적으로 담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영의 이와 같은 '죽음 예찬'은 곧 당대 조선인들의 태평양 전쟁 참전을 간접화법으로 권유하고, 조선인들이 황국병사로서 죽는 것에 대해 적절한 동기와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 것이 된다.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 송영이 이처럼 '동양주의'로 넘어가게 된 데에는 조선적 특수성보다는 계급적 국제주의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의 전력이 여타 민족주의자들보다는 '동양주의'에 접속될 가능성이 더 컸음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 동양주의, 상상적 지리, 전유, 죽음 숭배,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

1. 문제의 제기

1940년대 전반기 한국 사회에서는 서양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동양을 수호하려는 반서양주의 담론(옥시덴탈리즘)이 횡행하고 있었다. 옥시덴탈리즘은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이라 할 수 있는데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하면, 요컨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방식이다.¹⁾

일본은 이와 같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을 순발력 있게 내면화하여 일본의 '동양주의' 담론을 창안하고 이를 서양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획득하는 데 활용했다. 즉, 일본의 동양주의는 서양을 타자로 내세우면서 서양 뿐 아니라 일본 이외의 아시아를 지배하고 재구성하고 억압하기 위한 일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당시 일본의 피식민 국가 지식인들 중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일본의 동양주의를 내면화하여 피식민 상태에 처해 있는 일반 민중들 가운데서 지배적 위치를 얻어낸 경우가 있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18면.

이렇게 볼 때, 담론이란 언제나 권력과 앎 사이의 지난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제 말기에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일본의 동양주의가 어떻게 한국 지식인들에게 전유되었으며 그들이 동양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삶이 어떻게 담론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형성되는 상대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욕망의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우울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에서 벌어진 '제 1회 국민연극경연대회' 참가작이었던 연극 <산풍>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이 어떠한 담론화 방식을 통하여 당대 민중들을 지배 · 재구성 · 억압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국민연극경연대회」(國民演劇競演大會)는 그간 반개년 동안이나 참가 극단이 준비와 연습을 거듭해오던 바 드디어 금十八일밤 七시부터 극단 성군의 「산돼지」로서 찬란한 첫막이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국민연극 대회는 기보한바와가치 단체상의 총독상(總督賞)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개인상(個人賞)이 있느니만치 근래에 엮는 권위가 잇는 공연으로서 본사에서 특히 이 기회에 국민극은 될수잇는대로 본사 독자에게 보이기위하여 독자에게 독자우대권(讀者優待券)을 배포했는데 그 우대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一圓五십전을 一圓으로 할인하기로 되었다.²⁾

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국민연극경연대회'는 조선 총독의 권위를 앞세워 시행된 관제행사의 성격이 강했다.³⁾ 이 대회에서 송영은

작품상은 유치진의 <대추나무>에 내어주었지만, <산풍>으로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송영은 이 외에도 1943년의 제2회 대회에서 <역사>로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1945년의 제3회 대회에서도 <신사임당>, <달밤에 걷는 산길> 두 편을 출품한 바 있다.

<산풍>이 공연된 1942년은 '대동아전쟁 전승 제1차 축하국민대회'가 열린 해이며, 전쟁을 이론적, 철학적 논리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창된 '근대초극론'이 한창일 때였다.

근대초극론자들에게 있어 근대초극론의 기획은 태평양전쟁에 도의성과 윤리성을 덧입히는 작업에 불과했으며 당연히 근대초극론의 도의라는 것은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공고화를 의미한다.⁴⁾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당시 일제가 기획한 '국민연극경연대회'는 구체적으로는 태평양 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면적으로는 '천황 중심의 국민국가' 공고화를 위한 담론의 생산과 유포를 위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송영의 <산풍>은 극문학을 통한 동양주의의 담론화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정신성 마련을 위해 쓰여졌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그 동안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의 계시(극단 아랑, 안영일 연출), 유치진의 대추나무(현대극장, 서항석 연출), 임선규의 <빙화>(극단 고희, 전창근 연출), 그리고 송영의 <산풍>(청춘좌, 나옹 연출)이 경연을 펼쳤다. 12월 18일 연극경연대회 심사결과 아랑과 고희가 단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12월 30일에 거행된 시상식에는 단체상은 수여하지 않은 채, 작품상(정보과장상)에 <대추나무>의 유치진, 연출상(황도문화협회장상)에 <산풍>의 연출자 나옹, 장치상(매일신보사장상)에 <산풍>의 원우전이 각각 결정되었으며, 연기상은 서일성과 유경애 등 각 극단 연기자들에게 고루 배정되었다.⁷⁾ 이재명 · 이기한, 「해방 전 공연회곡과 상영 시나리오의 의의」, 이재명 · 이기한 · 양승국 외, 『해방전(1940~1945) 공연회곡과 상영 시나리오의 이해』, 평민사, 2005, 22면

4) 노상래, 「한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초극하기 - 김남천의 경우」, 『일본문화연구』, 제22집, 2007, 66면.

2) 「國民演劇競演大會 - 今夜, 府民館서개막 · 本報讀者優待」, 『매일신보』 1942.9.18.

3) "1942년 9월에 개최된 제1회 연극경연대회는 조선연극문화협회 주최 행사이긴 했지만, 총독부 정보과와 국민총력조선연맹과 매일신보사 등이 후원한 관제행사였다. 제1회 연극경연대회에는 조선연극문화협회 소속의 대표적인 5개 극단만 참가하여, 박영호의 <산돼지>(극단 성군, 이서향 연출)를 필두로, 김태진의

먼저 이미원은 <산풍>에 대해 ‘구체적인 친일사상을 찾기 어려운데, 산사람들의 순박함 가운데 한국 전통적인 굳건한 모성상을 부각시켰다’고 하면서 ‘친일보다는 당시 사회의 문제점들을 계몽의 차원에서 부각했다는 점에서 계몽극에 가깝다’고 보았다.⁵⁾ 서연호 역시 <산풍>에 대해 ‘아직은 노골적인 친일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평하면서 ‘총독부가 장려하는 근로보국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⁶⁾

이에 비해 정호순은 송영의 <산풍>과 <신사임당>을 함께 ‘모성’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면서 ‘<산풍>은 아들을 忠良한 皇民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을 결행하는 어머니를 ‘朝鮮의 母性’으로 왜곡하는’ 명백한 친일선전극이라고 규정했다.⁷⁾ 김옥란 또한 ‘송영의 경우 표면상 목적의식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 않아 친일의 정도가 약한 것처럼 보이거나 동양정신·일본정신의 강조를 통해 내면으로부터 뿌리깊게 일본적인 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서 그의 은폐된 친일성을 폭로하였다.⁸⁾ 그렇다면 이렇듯 <산풍>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송영은 <산풍>의 작의에 대해 작품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직접적인 언급을 해 놓은 바 있다.

현대인은 자칫하면 이 그윽하고 고상한 동양의 사상에서 벗어나 방종하고 제멋대로의 생활로 달려가고 있다. 게다가 동아공영권 확립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강인한 정신이다. 이는 현대인을 본래의 동양인으로 돌아 가게 하고 일본정신을 체득시키는 일이다. 이는 우리 일본인이 유구히

수천 년 면면히 이어온 강의(剛毅)한 의지 속에서 순진함과 온화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돌파해 가는 기백이기도 하다. 이 사상-자립, 자활, 다른 사람들 못지않은 의기, 나아가 사람들을 지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도회문화로부터 동떨어진 깊은 산속 사람들의 생활로부터 건어 올리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긍지로 여긴다는 의도 하에서 이 소품이 창작된 것이다.

—송영, 「산풍-의도」

이 때 송영이 말한 ‘동양의 사상’은 당시 일본의 식민 담론인 ‘동양주의’ 담론을 말하는 것이다. 즉 송영은 <산풍>에서 노골적으로 친일적 정책을 선전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 동양주의를 체득 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대표적 평론가였던 오정민이 제2회 국민연극경연대회에 출품되었던 송영의 <역사>를 보고 나서 쓴 관극평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역사」가 가진 古雅하고 幽玄한 劇的情緒, 「山風」, 「歷史」에 그려진 눈물겨운 母性愛. 그리고 「산풍」에서는 佛敎, 「歷史」에서는 儒敎가 가진 李朝的인 倫理觀을 取扱하여, 그것을 無理없이 超克시킨 作者의 劇作術이 야말로 皇道精神의 血肉化함이없이는 到底히 不可能한일이였다.¹⁰⁾

위 글의 직접적인 대상인 송영의 <역사>는 <산풍>보다 더 적극적인 친일성을 표방하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글을 통해서도 ‘황도정신의 혈화’가 언급될 만큼 송영의 국민연극이 일종의 강력한 ‘정신성’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전시 상황의 즉각적인 반영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다루는 이러한 ‘정신’의 강조-‘내심의

5) 이미원, 『한국 근대극 연구』, 현대미학사, 1994, 366면.

6) 서연호, 「식민지시대의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135면.

7) 정호순, 「國民演劇에 나타난 母性 연구 - 宋影의 <山風>, <申思任堂>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통권 제125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3, 340면.

8) 김옥란, 「국민연극의 욕망과 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2007.4, 126면.

9) 김옥란, 앞의 논문, 107~108면 재인용.

10) 吳禎民, 「演劇競演大會出演 藝苑座의 「歷史」, 『朝光』, 1943.10.

기쁨'—가 가짜 현실의 반복적인 모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¹¹⁾ 즉 송영이 동양주의에 대한 체화를 기도한 것은 그 어떤 친일적 선전보다도 더 뿌리 깊은 정신적 차원에서의 '친일'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40년대 전반기 제국 일본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한 가지 특징은 국가가 신민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정신까지 지배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¹²⁾ 이러한 '영혼에 대한 지배'야말로 일제 통치의 특수성이었고, 이에 가장 자발적이고도 효율적인 협조를 한 사람이 송영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 본고의 일차적 문제의 식이다.

그는 1941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네 번에 걸쳐 <매일신보>에 기고한 「國民劇의 創作 - 作家의 立場에서」라는 글에서도 국민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며, 형식 뿐 아니라 내용, 즉 이념이 새로워진 국민극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송영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국민극의 이념, 즉 '정신'에 다가선 창작을 의도했던 작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풍>처럼 뚜렷하게 '친일'의 작의를 표명했을 뿐 아니라 당대의 호평을 이끌어내었던 작품이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까지 일견 친일의도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또한 이 논문의 문제의식에 속한다. 그것은 이 작품이 지닌 담론의 구조가 오늘날 우리 속에도 여전히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앞선 연구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산풍>에 나타난 동양주의의 담론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제의 담론이

11) 김옥란, 앞의 논문, 108면.

12) 이철우, 「일제하 한국의 근대성, 법치, 권력」, 신기욱·마이클 로빈슨 저, 도면회 역,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98면.

어떤 식으로 송영에게 전유되었으며, 그것은 희곡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민기에 가장 왕성한 프롤레타리아 연극 활동을 한 바 있는 송영이 이처럼 동양주의의 선전인으로 바뀐 데에는 시대적인 압력 외에도 본인 내면에서의 논리적 전환 과정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 어떤 논리적 과정을 통해 친일로 돌아서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풍>을 대상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 가운데는 이 작품이 일제의 노골적인 태평양 전쟁 선전이 강화되기 이전인 제1회 대회 작품이라는 점도 작용하였다.¹³⁾ 이후 제2회 대회에 출품된 <역사>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친일 담론이 표면적으로도 드러나 있다. 이때의 '동양주의' 담론이란 이미 전사회적으로도 일반화된 상태여서 <역사>에서는 작가의 동양주의에 대한 내면화 역시 더욱 성숙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산풍>은 또한 송영이 국민연극으로 전향한 후 비교적 초기에 쓴 작품이므로 여기에는 작가의 전향 논리가 보다 고스란히 녹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산풍>의 분석을 통해 송영을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들, 그 중에서도 과거 좌파 경력 연극인들을 설득시킨 의식적, 무의식적인 담론의 자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송영 희곡 세계의 변화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1942년 제1회 연극경연대회는 주요 극단을 중심으로 기존 작가, 연출가, 연기자들의 참가 여부 자체가 중요시된, 따라서 연극인들에게는 국민연극 운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 혹은 증거의 대회이자 일제 당국의 입장에서서는 전체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김옥란, 앞의 논문, 100~101면.)

2. 시골/도시의 상상적 지리

송영의 <산풍>은 ‘4·5 간의 인가가 있고, 물소리와 새소리와 목탁소리만이 유구히 들려오는 한적한 산중’이 그 배경이다.

그렇나 最近에는 삼복증을 중심삼아서 피서객, 요양객, 유산객들이 모혀들어 ‘여기서부터 이 산속의 공기는 각금 흐려지려 한다’. ‘그렇나 예전부터 이 산속에서 사러오든 사람들은 조금도 흐려진 공기에 휩쓸려들어 가지를 앓고 빗나는 산의 전통을 직히고들 산다. 그 전통이란 순박하고 강직한 산의 풍속이다.(11면)¹⁴⁾

이 극의 도입부 첫 지문에는 이와 같이 시골/도시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 이는 이 작품의 결말까지 이어지는 구도이며,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오 우리 산골에는 그것케 인정없는 풍속은 자고로 없었소.(41면)

이 극의 배경인 ‘산골 마을’은 원래 한적하고, 인정 있고, 예의 바르며, 깨끗한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 대표적 인물로는 ‘모’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도시’는 인심이 무섭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물신주의에 빠진 곳으로 재현된다. 그 대표적 인물로는 ‘해 주집’과 ‘영자’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도는 <산풍>의 핵심에 가로놓여 있는 심상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적 지리 의식은 먼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인식 방식에서 그 담론 양식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상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동양인

이나 아랍인은 우둔하고, 활력과 자발성이 없으며, 정도에 지나친 아부와 음모, 교활, 동물 학대를 일삼는다. 동양인들은 도로도, 포장도로도 제대로 찾아 걸을 수 없다. 동양인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둔감하고 의심이 많으며, 모든 점에서 앵글로색슨 인종의 명석함, 솔직함, 고상함과 대조적¹⁵⁾이라는 식의 표상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상상적 지리 의식이란 흔히 권력의 중심부가 주변부를 지배하기 위한 담론 전략으로 이용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와서 옥시덴탈리즘으로 전유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인식론적 구별 방식을 자신들이 서양 및 아시아 제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방식으로 내면화하여 새로운 ‘동양’ 개념을 창출한 바 있다.¹⁶⁾ 이것이 일본의 ‘동양주의’이다. 이는 곧 ‘일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서양을 타자화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으로 기획된 것이다. 일본은 서구에 대항할 동양의 이미지로서 ‘온화함’, ‘도덕적 윤리’, ‘조화’, ‘공동체주의’를 들었다.¹⁷⁾ 한편 서양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적, 경쟁적, 소외적 성격을 부여하였다.¹⁸⁾

그렇다면 조선 및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표상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완고하고 고루함’, ‘고루하고 편협함’, ‘의심 많음’, ‘구태의연’, ‘겉 많고 게으름’, ‘잔혹하고 엄치없음’, ‘거만’, ‘비굴’, ‘참혹’, ‘잔인’ 등 수많은 비역사적인 기술들로 아로새겨져 있다.¹⁹⁾

15) 에드워드 사이드, 앞의 책, 78면.

16) “지리, 문화적 존재로서의 ‘동양’은 본질적으로 20세기 일본의 관념이다.”(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합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19면.)

17) 이는 오카쿠라 텐신의 표현이다. (스테판 다나카, 앞의 책, 32면.)

18) 이는 시라토리리의 표현이다. (스테판 다나카, 앞의 책, 41면.)

19) 이는 동양에서 ‘문명의 우두머리’인 일본을 ‘널리 세계에 과시하려고’ 한 후쿠자와가 ‘지나’나 그 속국으로 여겼던 조선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강상중 · 이경덕 ·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89면.)

14) 이미원, 앞의 책. (텍스트 인용은 이하 면수만 기재하기로 한다.)

이상우는 1940년대 전반기 희곡 중에서 반서양주의의 극적 상상력을 보여준 작품으로 임선규의 <빙화>, <새벽길>, 조천석의 <개화촌> 등을 분석한 후에 일본 동양주의가 조선인을 ‘비국민’에서 ‘국민’으로, 즉 황국 신민으로 개조시키기 위해 반서양주의 담론을 활용했음을 드러낸 바 있다.²⁰⁾ 이러한 옥시덴탈리즘적 상상력은 송영의 <산풍>에서도 뚜렷하게 발견된다.

<산풍>에서는 일본 동양주의적 관점에서의 동양/서양의 이항대립이 시골(동양)/도시(서양)의 이항대립으로 치환되어 드러나 있다. <산풍>에서의 산골 사람들은 이 극에서 동양인, 곧 일본인들을 표상한다. 한편, 산골 마을의 순수함을 해치는 세력인 도시 사람들은 서양을 표상한다. 그렇다면 시골=동양(일본)/도시=서양의 도식이 이 극의 중심에 가로놓여 있는 이항대립의 구도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서구 오리엔탈리즘에서 보여준 동양/서양의 담론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서양/일본으로 전도되었고, 송영은 <산풍>에서 이를 도시/시골의 구도 안에서 재현해놓은 것이다.

원래 서구에서 유래된 반도시주의적 사고방식은 후에 반서양주의의 중요한 표상방식이 되었다.²¹⁾ 일본은 이러한 옥시덴탈리즘의 시야로 아시아 제민족을 일본의 지배권 안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서양주의 담론은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조선에서도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었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이러한 담론이 피식민 국

20) 이상우, 「심상지리로서의 대동아」, 『한국극예술연구』 제27집, 2008.4, 195면 참조.

21) 도시/시골의 담론은 ‘시골에 혁명기지를 구축해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는 마오쩌둥의 혁명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특하게 중국적인 마오쩌둥의 반도시주의는, 부분적으로는 루소Rousseau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 도시를 모든 사회적인 사악함과 도덕적인 타락의 상징으로 그리고 시골의 자연적인 순수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는 서양의 지적 전통의 한 조류와 일정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샤오메이 천, 정진배·김정아 역, 『옥시덴탈리즘』, 도서출판 강, 2001, 16면.)

가 내부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송영은 바로 그러한 일본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수행한 작가로 꼽을 만하다.

이와 같은 옥시덴탈리즘의 상상적 지리 의식은 <산풍>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데, 시골을 표상하는 인물로 ‘모’를 들 수 있다.

母 病身몸으로 엇딴게 살아가겠는나말요 - 흥 그러치만 두팔쓰는사람
이 하로면 하는일이면 나도 이외팔로써 하로면 해낼테요 - (더自信
있게) 안뇨 그以上할테요 내 이 한팔은 남의두팔목 열팔목의 일도
할수있소.(19면)

母 배가 곱하도
種聲 도적질을마라
母 목이다라나도
種聲 거죽말은마라 (26면)

위는 ‘모’의 강직한 성품을 읽을 수 있는 대사들이다. 그녀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母 돈 때문에 낫을든다. 너갓튼놈은 우리山속사람이아니다 山속김생
만도못하다(54면)

즉, ‘모’는 아직 자본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산속’의 진실한 인정을 대변하는 인물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타락한 아들을 돌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이로써 ‘시골’의 표상인 ‘모’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수하고 강한 정신성을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도시’를 표상하는 인물로 ‘영자’와 ‘해주집’이 있다.

英 잘못하고말고요 사실 저는 이제까지 人生의廢物이였어요 富裕한 家庭속에서 世上이 엇딴케 도라가는줄을몰랐서요(103면)

‘모’의 아들 중성을 도시로 유혹하는 역할을 맡은 영자는 ‘신경질인데 다가 빨큰하기를 잘하는 병약한 인물’(103면)로 설정되어 있다. ‘모’의 딸 종옥을 피어 기생으로 만든 해주집 역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악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시골과 도시의 대결에서 도시의 공격에 시골은 점점 오염되어가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중성마저 영자에게 빠져 약혼녀인 시골 처녀 오묵이를 버리고 도시로 가서 살려고 하자, ‘모’의 위기의식은 커진다.

이처럼 도시를 지향하는 중성, 종옥, 해주집, 영자와 시골을 지키려는 ‘모’의 대치는 이 극의 주요 갈등양상을 드러내준다. 즉, 시골/도시의 상상적 지리의식이야말로 이 극의 저변에 가로 놓여 있는 커다란 이항대립이며 이는 옥시덴탈리즘적 사고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제의 동양주의 담론에서는 시골=불교=동양/도시=기독교=서양의 도식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 극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불교’ 또한 넓은 의미에서 ‘동양’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新羅時代에 建立되었다고傳하는 雲興寺는 最近에와서 弊社가 되었다 그리고 最後까지 이절을 직히고 있다가 年前에 死去한 住持僧의 遺妻가 어린 男妹를 데리고 살고있다.(11면)

이 극에서 ‘불교’는 위와 같이 배경으로 작용할 뿐, 불교적 사유가 특별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절이 배경이고, 주지승의 가족들이 중심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무대의 전반적 분위기가 불교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 극의 배경이 산골이고 동시에 불교적이라는 것은 ‘동양정신을 조선인들에게 체득시키고자 한’ 송영의 계산된 의도에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일본의 동양주의는 서구 기독교에 대항할 동양의 종교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으로 말미암아 탄력을 받은 근대초극론은 우선 아시아에서의 인종적, 문화적 통일성을 기획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일 종교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니시타니 케이지는 서구의 기독교는 ‘종교의 철저한 초월성’이 ‘철저한 내재성과 상충할 수 없어’ ‘근세 서양 종교성의 한계 및 그 종교성의 막힘’이 있었다고 진단했다.²²⁾

송영은 서구의 기독교에 맞서는 동양(일본)적 종교로서 불교를 설정하여 <산풍>의 배경을 절이 있는 심산유곡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심산유곡이야말로 그 어떤 근대적(서구적) 종교나 문화와의 교섭도 없는 절대적인 동양문화의 표현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시골’과 ‘불교’라는 표상은 그것이 ‘동양적’이기 이전에 ‘조선적’이기도 한 것이어서 당시의 대중들에게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조차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면이 있다. ‘모’가 보여주는 강인한 모성상 또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국 일본의 동양주의 담론 속에 ‘조선적인 것’에 대한 용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일본 당국은 광활한 제국 일본의 문화적 풍요와 다양성, 포용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식민지 문화의 독자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다. 허용할 뿐만 아니라 때로 장려하기도 했던 것이다.²³⁾

그러나 이러한 동양적이면서도 조선적인 표상들은 결국 총력전 시기 일본의 군국주의 이념 안으로 총체적으로 회수된다. ‘시골’은 태평양 전쟁을 위한 물자 생산 기지로서, 전통적 ‘모성’은 ‘군국의 어머니’이자 신체 제하 총후부인의 표상으로서²⁴⁾ 그 담론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2) 노상래, 앞의 논문, 64면.

23) 이상우, 「한국회국의 동양지향성과 오리엔탈리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9집, 2008.6, 40면.

그리고 일제가 펼친 ‘불교 담론’ 또한 결국 국가주의로 소환된다. ‘화염적 일즉다’를 주장했던 교토학과 니시다 기타로의 불교론 역시 결국 천황이 곧 일본 신민 전체라는 천황제 국체를 긍정하도록 하는 논리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것이²⁴⁾ 그 한 예이다.

이처럼 시골/도시의 상상적 지리 의식에 기반한 <산풍>의 표상들, 즉 시골, 모성, 불교, 등은 동양주의 담론의 대표적 표상 방식에 속하는 것들이며, 이를 통해 송영은 당시의 조선인들을 태평양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일본인으로 호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동양주의의 사회주의적 전유

<산풍>에는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드러나 있다.

모 우리 애들은 훌륭하게 맨드러놔코 말겠쇠다.(20면)

박 내 몸이 열과가 나드래도 우리 일성이 높은 공부를 식히고 말 걸. 공부안식히고 그냥 길느려면 적어버리는 게 월등 낫쇠다.(23면)

오 허 핵교를 안보내면 모두 저모양들이란 말야. 춘보 빗이라도 내서 글들을 가르키게 - 저것들이 뭔가 응 딱 다람쥐색기들 것호이. 응 아조 원승이같은데.(44면)

24) 정호순, 앞의 논문 참조.

25) 박수연, 「친일과 배타적 동양주의」, 『한국문학연구』 제3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6, 208면.

그런데 극 속에서 산골 주민들의 이러한 계몽에 대한 열정은 무릇 ‘자본’,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오 그런데 춘보, 자식이란 무슨 짓을 하드래도 글을 가르켜놔야겠데 내가 그것케 어려워도 그 녀석을 핵교 졸업을 식혀놔드니만 저릿케 면소규 - 지가 똬다말야.(43면)

만석 나도 야학에나 단겨서 국어나 잘 배웠드면 저자식처럼 지도원이나 돼서 뽐내볼걸 그렇지.(82면)

일성 늙은 어머님밧테서 20리나 되는 산길밤길을 거러서 입을 앙물고 공부를 해서 이런 지도원까지 된 사람은....

만석이 야학에 가서 잘 배워두지 못해 후회하고 있는 ‘국어’는 물론 식민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가리킨다. 당시 ‘공부’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공부를 하면 곧 제국의 관리로서 일본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식민 기간 동안 일본은 ‘계몽’의 중요성을 설파하였고, 송영 역시 이를 작품 속에 받아들이고 있다.

‘계몽’에 대한 담론은 20세기 초부터 조선 사회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이지만 당시는 ‘독립’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계몽’은 민족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4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서는 ‘계몽’은 실제로 일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앞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영의 <산풍>에 나타난 산골 주민들의 향학열에 대한 묘사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우선 위와 같은 장면은 식민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사람이 자본과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당대 조선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면서, 동시에 작가가

일본의 식민 담론을 어느 정도 내면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식민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식민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황국신민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송영은 이러한 상황을 극화함에 있어서, 일제의 담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피식민 주체로서의 자의식도 노출하고 있어 주목되는 것이다.

‘공부’를 해서 면소의 규지가 된 영근의 아버지 ‘오’의 대사는 시종일관 아들의 출세와 ‘자본의 획득’을 연관 짓고 있다.

오이번에는 우리 영근이가 뭘 사가지고 왔을가.(45면)

그러나 ‘오’는 극 중에서 시종 말을 쉽게 옮기고 신중하지 못하며 걸핏 하면 아들 자랑을 하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모’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야학을 마친 ‘종성’ 또한 산림조합의 지도원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해내지만 그 역시 결국은 신여성 ‘영자’에게 빠져 산마을의 혼을 빼앗기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계몽’과 관련된 인물들이 긍정적으로만 그려진 것이 아니며 이들이 지니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동시에 들춰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하는 이 극의 극작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송영은 일본에 동화된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도 식민 주체의 담론에 함몰되지만은 않고 한편으로 피식민 주체의 시각 하에서 일제에 의한 ‘계몽’의 중층적 성격을 표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일본이 주도하는 조선인들의 계몽이 지니고 있는 부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극 속에서 보다 견고한 일제 담론의 제시를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송영이 동양담론의 유포자이면서 한편으로 위와 같은 현실적 감각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계몽 담론이 지닌 허구성을 직시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그의 세계관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성 ...부즈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죠.

(자기는 부즈런하게 일을 해와도 언제나 똑같은 솟굽는쟁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어린애의 성의가 꺾길가봐 염려해서...) - (‘박’에 관한 지문이다 - 인용자 주)

희곡 전체의 주체와 다소 동떨어진 듯한 위 ‘박’의 지문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삶이 나아지지 않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세계관은 일제의 동양주의와 함께 이 극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성’은 야학을 통해 ‘솟굽는쟁이’에서 ‘지도원’²⁶⁾으로 승격됨으로써 앞에서 제시된 ‘박’의 암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계몽을 통해 ‘종성’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거대한 자본의 유혹이 결국 그를 파멸의 길로 몰려가는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인간 삶의 혁명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작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여성 영자와의 만남은 종성에게 있어 문명의 매혹 속에 내던져진 ‘계몽’의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다. 종성은 처음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서 영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종성 그럼 솟지고 지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요.(100면)

26) “일제 말기, 일본은 조선에서 ‘일본을 위한 농촌진흥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런데 이 운동을 실현해나가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부족한 상태였다. 대한인 청년 중에 초등학교 졸업자를 농촌청년훈련소에 1년간 입소하게 하여 ‘황국농민’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일이다. 특히 장래 이들을 중심으로 부락민의 공동 장려의 조직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고영자, 『일본의 파시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 태자출판사, 2008, 284~285면.)

중성 부끄러운 줄을 아는 사람이면 땀흘리기를 싫어하고 놀기를 조화하지 않을 것입니다.(108면)

이에 영자는 아래와 같이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영 오는 길에도 숫굽는가마와 숫나르는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숫한토막이 귀함을 깨닫았습니다.(107면)

영 밥이 엇딴개 입으로 들어오는줄도 몰고 世上이 엇딴개 도라가는 줄도 몰고 편만한 것 재미있는 것만 취하려 들고 정말 나는 폐물야.(110면)

영 그렇지만 나도 폐물이 안될 테야.(110면)

위와 같이, 중성과 영자의 첫 만남에서는 중성의 우위가 확실히 드러난다. 영자는 중성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고 부르주아적 신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세계, 시골과 도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접촉은 끝내 후자의 승리로 귀결되어진다. 이처럼 <산풍>이 다른 국민극들과 다른 점은 시골=일본의 표상방식에 사회주의적 이미지를 가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본은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파시즘적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극 속에서 이러한 송영의 사회주의적 계기는 어떻게든 소거되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산풍>에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결국 중성과 영자는 이성간의 이끌림으로 인하여 연애에 이르게 되고, 중성은 산마을과 어머니, 약혼녀 오목이를 잊고 영자와의 로맨스에 빠져 든다. 이는 시골=사회주의가 결국 거대한 도시=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한 작가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를 앞세운 서양의 문명화 전략에 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동양의

처지=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양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극복의 방식이야말로 송영의 최종적 귀결점이 어디였는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이 모든 혼란과 모순을 일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자살을 통한 ‘모’의 죽음이었다.

그렇다면 시골=사회주의=일본은 모순된 사실이 된다. ‘자살’이라는 모티프와 사회주의적 전망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사회주의적 계기는 송영이 일본의 동양주의를 본격적으로 작품에 투사하기 전에 그가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의식 변화 과정의 노정으로 보인다.

그는 시골=사회주의/도시=자본주의라는 도식에는 익숙해져 있었고 흔쾌히 동의할 수 있었으나, 시골=일본/도시=서양이라는 동양주의의 도식에 곧바로 자신의 의식을 투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산풍>은 사회주의자 송영이 동양주의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송영은 일본=동양을 도덕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약자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서 사고했던 것이다. 그는 일본이 제시한 동양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을 사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닌 사회주의적 구도에서 서양=자본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일본을 사고함으로써 일본의 편에 자신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로서의 그의 전력과도 관련된다.

<산풍>에는 공부를 안하면 ‘야만’이 되고, 공부를 하면 ‘타락’이 되는 피식민 상황에서의 ‘개몽’의 양가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송영이 취할 수 있었던 돌파구는 1930년대에는 사회주의였고 1940년대 전반기에는 동양주의였던 것이다. 이 작품에는 이러한 송영의 두 가지 모색이 혼재되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산풍>은 우리에게 송영의 내면에서 사회주의와 동양주의가 어떻게 접합되고 충돌하면서 상호작용을 이루어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

탄부2 첫째 숫가마가 개량이 된 거라든지 저축조합이 설립된 거라든지 야학을 하게 된 거라든지, 우리 중성이 때문이 아냐...(83면)

위와 같이 <산풍>에서 ‘계몽’은 잠시 칭송되는 듯하다. 그러나 작품 전반적으로 ‘계몽’에 관한 송영의 발화는 이중성을 띠고 드러나 있다. 하나는 그 또한 식민 담론을 내면화한 의사제국주체로서 하는 발화이고, 다른 하나는 피식민자이자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변자인 사회주의자로서, 제국 일본의 ‘계몽’에 대한 비판자로서 하는 발화이다. 그러나 여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한 ‘계몽’이라는 의식이 끼어들 틈은 조금도 없었다. 즉 비운의 양자택일만이 그에게 놓여진 선택이었던 것이다.

결국 송영이 작품 속에서 취택해나간 방향은 ‘전체주의’로의 귀의였다. ‘전체주의’는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일단 그는 동양주의의 편에 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동의한 동양주의의 긍정성은 무엇보다도 ‘모성적 정신주의’였다.

4. ‘죽음’의 미학화를 통한 일본 정신의 구현

일본의 동양주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체주의’에 귀의하고 있다. ‘동아협동체론’을 정초한 미키 키요시는 서양의 문화는 근대적 경향과 결부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근대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에 맞서는 것으로 ‘전체주의’의 의의를 강조한 바 있다. 즉 그는 서양의 근대를 극복할 대안적 사상으로 ‘전체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현대의 사상은 언제라도 전체성의 사상을 기초로 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한 이러한 전체주의를 발양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전통에 속하는 게마인샤프트적인 문화에 내재해 있는 ‘어떤 직관적인 것’이 살려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아 협동체에서 일본이 ‘지도적 지위에 서야’ 함을 피력하였다.²⁷⁾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일본 정신의 지도적 역할 하에서라야 ‘동아협동체’가 가능함을 주창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신은 <산풍>에서 모성적 정신주의로 표상되고 있다.

모 죽옥이는 십년전에 죽고 중성이는 오늘 죽었서. (135면)

모 죽어없어지든지 - 죽어도 이 산속에서는안된다. 가거라 (137면)

모 우린 우리끼리 살자.(123면)

모 중성아 이 동리를 네 손으로 이르켜라. (145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적 순결주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산속의 타락을 막으려는 극단적인 정신주의를 보여주는 ‘모’의 결연한 의지는 일제 담론의 전형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제국 일본이 유포한 죽음에 대한 숭배와도 통한다.²⁸⁾

‘모’의 죽음으로 ‘중성’은 정신적으로 거듭나게 된다.

27) 미키 키요시, 『신일본의 사상 원리』,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 지성사, 1997 참조.

28)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동원할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미화된 ‘죽음’에 관한 담론들을 유포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최후 2년 동안 감행된 자살 공격의 원인은 죽음에 대한 숭배였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숭배는 옛 전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군국주의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또한 일본의 전통보다는 종종 왜곡되어 유입된 유럽의 사고방식이 이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연 바루마·아비샤이 마겔릿, 송충기 역, 『옥시덴탈리즘』, 민음사, 2007, 80면.)

종성 어머니 이 산속에 살면서두 얼마든지 이 동리를 잘 만들고 나도 훌륭한이 될 수 있소. 어머니, 나는 무슨 일이 있드래도 어머님 말을 직히고 살겠소. 어머니 (145면)

즉, ‘도시’와 ‘문명’에 현혹되어 타락해버린 산속 사람들을 정화시킨 것은 그 무엇보다도 ‘모’의 죽음이었다. 송영은 모의 ‘죽음’을 통해 도시적 물질주의에 의해 타락하기 이전의 ‘순결’한 일본 ‘정신’을 표상해낼 수 있었다. 즉, 모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되찾고자 한 것은 타자에 의해, 혹은 도시화·산업화 등 후세의 발전에 의해 오염되기 이전의 일본의 원천성,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²⁹⁾

그리고 이는 곧 일본의 전체주의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며, 그 역사는 잔혹한 이야기이다. 일본 파시스트 국가는 사후에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 민간종교의 특성을 이용하여 죽음을 의무화하고 그 대신에 혼이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갖춘 사쿠라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증했다.³⁰⁾ 이러한 ‘죽음’에 관한 미화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태평양 전쟁에 나가 황국신민으로서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병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점차적으로 고안되고 발명된 것들이다.

송영은 이 극에서 이미 오염된 도시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산 속의 순결성과 정신성을 지켜내기 위해 ‘모’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모티프를 활용하였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전쟁으로 표상되는 태평양 전쟁에서 동양의 원천성을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희곡적으로 담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영의 이와 같은 ‘죽음 예찬’은 곧 당대 조선인들의 태평양 전쟁 참전을 간접화법으로 권유하고, 조선인들이 황국 병사로서 죽는 것에 대해 적절한 동기화

29) 오오누키 에미코, 이향철 역,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4, 417면 참조.

30) 오오누키 에미코, 앞의 책, 421면.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 것이 된다.

송영은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피식민국의 지식인으로서 끝까지 지나야만 했던 자의식의 끈을 무참히 놓아버리고 파시즘의 ‘죽음 숭배’ 안으로 포획되어 들어간 것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동양주의 안으로 소거되어 갔던 것이다. 이는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이 동양주의 논리 안으로 포섭되어 들어가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³¹⁾

<산풍>을 통해 볼 때, 송영은 동양주의가 지닌 반자본주의 논리에 동조함으로써 손쉽게 동양주의 논리 안으로 귀속될 수 있었던 듯하다. 즉 동양=시골=반자본주의/서양=도시=자본주의의 도식이야말로 <산풍>에 드러나 있는 송영의 동양주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근대를 넘어 서기 위한 ‘근대의 초극’ 논의는 송영에게 있어서도 ‘동양주의’로의 귀의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었고, 그 선상에서 <산풍>이 탄생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조선적 특수성보다는 계급적 국제주의에 충실하고자 했던 송영³²⁾이 ‘동양주의’에 접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컸음이 분명하다. 즉 송영의 <산풍>은 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가 동양주의로 건너가는 노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1) “위기의 국면에서 미키 키요시 및 영향력 있는 일본의 전향 좌파들이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표명한 이념이 아시아의 해방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은 식민지의 전향 좌파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사의 철학’과 ‘동아협동체’의 이상은—적어도 ‘대동아공영권’의 본질이 폭력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이른바 ‘근대의 위기’를 넘어설 논리적·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졌다. 특히 중·일전쟁이 궁극적으로 소비에트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으로 확대되고(전쟁상(戰歷上)의 차이로)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조선의 해방과 사회주의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했던 사회주의자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일본이 승승장구하며 대륙을 장악해가고 있을 때 전향한 식민지 조선의 좌파들에게 동아시아와 일본 내부의 변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상은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차승기, 「‘근대의 위기’와 시간-공간 정치학」, 『한국근대문학연구』 제4권 제2호, 2003.10.)

32) 김재용, 「송영 - 왜곡된 국제주의」,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168면 참조.

5.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1942년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에서 열린 ‘제1회 국민연극경연대회’에서 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송영의 <산풍>을 대상으로 하여, <산풍>에 드러난 동양주의의 담론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의 국책 담론으로 기능한 바 있는 일본 동양주의 담론이 식민지 지식인 송영에게 어떤 식으로 전유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먼저 그 담론화 방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풍>에는 동양주의가 지닌 시골/도시의 상상적 지리 의식이 극 전반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극의 배경인 ‘산골 마을’은 한적하고, 인정 있고, 예의 바르며, 깨끗한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시골’을 묘사하는 인물로는 ‘모’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도시’는 인심이 무섭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물질주의에 빠진 곳으로 재현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해주집’과 ‘영자’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골/도시의 담론 구도는 <산풍>의 핵심에 가로놓여 있는 심상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극의 배경이 되는 ‘불교’ 또한 ‘동양’의 표상으로 사용된 것이다.

둘째, ‘동양주의의 사회주의적 전유’ 과정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산풍>은 사회주의자 송영이 동양주의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과도기적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즉 송영은 일본=동양을 도덕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약자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서 사고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닌 사회주의적 구도에서 서양=자본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일본을 사고함으로써 보다 쉽게 일본의 편에 자신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죽음의 미학화를 통해 일본 정신의 구현’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극 속에서 ‘도시’와 ‘문명’에 현혹되어 타락해버린 산속 사람들을 정

화시킨 것은 그 무엇보다도 ‘모’의 죽음이었다. 송영은 ‘모’의 죽음을 통해 도시적 물질주의에 의해 타락하기 이전의 순결한 일본 ‘정신’을 표상해낼 수 있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전쟁으로 표상되는 태평양 전쟁에서 동양의 원천성을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희곡적으로 담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영의 이와 같은 ‘죽음 예찬’은 곧 당대 조선인들의 태평양 전쟁 참전을 간접화법으로 권유하고, 조선인들이 황국병사로서 죽는 것에 대해 적절한 동기와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 것이 된다.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 송영이 이처럼 ‘동양주의’로 넘어가게 된 데에는 조선적 특수성보다는 계급적 국제주의에 충실하고자 했던 전력을 지닌 그가 여타 민족주의자들보다는 ‘동양주의’에 접속될 가능성이 더 컸음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송영의 <산풍>에는 조선인들을 태평양 전쟁의 협력자로 구성해내기 위한 일제 파시즘 권력의 담론적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강력한 자발적 친일의 의도가 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상중 · 이경덕 ·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고영자, 『일본의 파시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 탕자출판사, 2008.
 서연호, 『식민지시대의 친일극 연구』, 태학사, 1997.
 이미원, 『국민연극』, 월인, 2003.
 이미원, 『한국 근대극 연구』, 현대미학사, 1994.
 샬로메이 천, 정진배 · 김정아 역, 『옥시덴탈리즘』, 도서출판 강, 2001.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 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 오오누키 에미코, 이향철 역,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4.
- 이언 바루마 · 아비사이 마겔릿, 송충기 역, 『옥시덴탈리즘』, 민음사, 2007.
- 김옥란, 「국민연극의 욕망과 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2007.4.
- 김재용, 「송영 - 왜곡된 국제주의」,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노상래, 「한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초극하기 - 김남천의 경우」, 『일본문화연구』, 제22집, 2007.
- 박수연, 「친일과 배타적 동양주의」, 『한국문학연구』 제3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6.
- 이상우, 「심상지리로서의 대동아」, 『한국극예술연구』 제27집, 2008.4.
- 이상우, 「한국희곡의 동양지향성과 오리엔탈리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9집, 2008.6.
- 이재명 · 이기환, 「해방전 공연희곡과 상영 시나리오의 이해」, 이재명 · 이기환 · 양승국 외, 『해방전(1940~1945) 공연희곡과 상영 시나리오의 이해』, 평민사, 2005.
- 이철우, 「일제하 한국의 근대성, 법치, 권력」, 신기욱 · 마이클 로빈슨 저, 도면회 역,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 정호순, 「국민연극에 나타난 모성 연구 - 송영의 <산풍>,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통권 제125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
- 미키 키요시, 「신일본의 사상 원리」, 최원식 · 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문학과 지성사, 1997.

Abstract

Japanese Orientalism Represented in the Play,
Sanpung of Song Yeong

Baik Seungsuk

This thesis pursues to investigate the representative methods of *Sanpung*, the Japanese national theatre, written by Song Yeong. *Sanpung* was presented to “the 1st national theatre contest” held in Gyeongseong, the capitol of Joseon in 1942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lay received the prize for the best production at this contest.

This thesis will illuminate that how the way of discourse of *Sanpung* works to control, reconstitute, and suppress the people of those tim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ciousness of imaginative geography, country/urban is one of the major ideas of this play. The imaginative geography, country/urban is also one of the main concept of occidentalism. Japanese orientalism is a kind of occidentalism influenced by Germany of Europe. ‘Mountain district’, the stage of this play represents ‘the quietness’, ‘humanity’, ‘courtesy’, and ‘straightforwardness’. The representative character is ‘mother’. Contrary to this, ‘urban’ represents ‘ungenerosity’, ‘licentiousness’, and ‘money-worship’. The representative characters are ‘HaeJu Jip’ and ‘Youngja’. And ‘the Buddhism’ is also used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oriental’.

Second, ‘the appropriation of Japanese orientalism through socialism’ is found in *Sanpung*. This play was in a state of transition between socialism and Japanese orientalism among Song Yeong’s works. He regards Japan=the oriental as the proletariat that must win because of his moral superiority.

The third, *Sanpung* intended to represent the ‘Japanese mind’ through the

aestheticization of death. In *Sanpung*, 'the death of mother' purified the people in the mountain district that had corrupted through the temptation of 'urban' and 'civilization'. Song Yeong could represent the 'pure Japanese mind' through the 'death of mother'. This represents that to protect Japanese(oriental) originality from the invasion of the west, the courage that is not afraid of death is needed. In conclusion, the discourse of Japanese orientalism including 'the cult of death' of this play contributed to give the appropriate motivation and moral authority to the people of Joseon who died in the pacific war.

Key words : Japanese orientalism, imaginative geography, cult of death,
international socialist

접 수 일 : 2009년 2월 28일

심사기간 : 2009년 3월 1일~3월 27일

게재결정 : 2009년 3월 27일